광주·전남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심각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미달 학생 비율 광주 5.2%·전남 4.9%…지난해보다 다소 늘어

고교 5년연속 향상률 광주 1·전남 3위…향상도 1위 서석고·송원여고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광주·전남 중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기초학력 향상'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의 굴욕**=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발표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중 '학습 부진아'로 분류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자 비율이 5.2%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전북을 제외하곤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4.7%)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올해 전국 평균(3.5%)보다는 1.7%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기초학력 미달'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 목표를 20% 미만으로 달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진급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 수준을 뜻한다.

과목별로는 광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이 4.2%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수학도 6.4%로 전북(6.9%)·강원(6.5%)에 이어 3번째, 영어는 5.1%로 전북(5.5%) 다음으로 높았다.

고 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0%로, 국어(2.3%), 수학(3.6%), 영어(3.2%) 등으로 집계됐다. 고2도 전년도(2.5%)와 견줘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

◇**전남도 비슷**=전남 중학생(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4.9%, 고교생(2학년)은 3.4%로 조사됐다. 중학생의 경우 전국 평균(3.5%)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17개 시·도별로는 전북·광주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과목별 미달 비율은 중3 국어 3.8%, 수학 6.2%, 영어 4.7%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도(4.8%)에 비해 증가한 반면, 고교는 지난해(4.0%)보다 다소 낮아졌다.

◇**'기초학력 향상'…요란한 헛구호?**=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는 광주·전남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만 하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중등학교(공립 62개교·사립 25개교)에 대해 3억4000여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학교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넘게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내년에도 ▲일반고 교육력 제고(7억2000만원) ▲기초학력 향상 특별지원비(4억4000만원) ▲두드림학교 운영비(5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기초학력 향상을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했지만 수치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남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자신들이 내세운 '2016학년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4% 이하 감축', '2018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2% 이하 달성' 이라는 목표를 이룰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이 추진중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53개교에 800만원씩 지원) 운영 및 디딤돌학습캠프(260개 초교·학교당 200만원 지원) 등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서석고·송원여고, 고등학교 향상도 1·2위**=학교가 노력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 정도를 나타내는 '학교 향상도' 평가의 경우 전체 중학교 3112곳 중 19.1%가 4년 연속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1668곳 중에서는 14.7%가 5년 연속 향상했다. 지역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광주가 25.3%, 전남 8.6%가 4년 연속 향상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광주 56.5%, 전남 24.8%의 학교가 5년 연속 성적이 올랐다.

광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서석고가 국어(9.9%), 수학(9.6%),영어(4.4%) 등의 과목별 향상도를 기록, 향상도가 가장 높았고 여고에서는 송원여고가 국어(8.6%), 수학(6.9%), 영어(6.2%) 등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2015년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위:%〉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평균	국어	수학	영어	평균
서울	3.6	5.0	4.2	4.3	5.4	8.9	7.1	7.1
부산	2.0	3.2	2.3	2.5	1.3	2.7	2.4	2.1
대구	1.4	2.4	1.4	1.7	0.7	1.6	1.3	1.2
인천	2.1	4.1	2.5	2.9	1.2	4.2	2.9	2.8
광주	4.2	6.4	5.1	5.2	2.3	3.6	3.2	3.0
대전	2.1	3.6	2.3	2.7	0.9	2.5	1.8	1.7
울산	0.8	1.8	0.9	1.2	0.3	1.2	0.9	0.8
세종	1.9	4.5	3.7	3.4	2.6	4.8	5.0	4.1
경기	2.1	4.6	3.4	3.4	2.9	7.4	5.9	5.4
강원	3.0	6.5	4.8	4.8	2.1	6.5	4.6	4.4
충북	1.4	2.8	1.6	1.9	0.6	1.6	1.0	1.1
충남	2.5	5.3	3.3	3.7	2.0	4.0	3.5	3.2
전북	4.1	6.9	5.5	5.5	2.7	5.4	4.8	4.3
전남	3.8	6.2	4.7	4.9	1.9	4.7	3.6	3.4
경북	2.3	3.9	2.8	3.0	1.4	3.0	2.6	2.3
경남	3.2	4.9	3.7	3.9	2.5	5.1	4.4	4.0
제주	4.1	5.1	4.5	4.6	1.7	3.9	3.4	3.0
전체	2.6	4.6	3.4	3.5	2.6	5.5	4.4	4.2

■ 2014년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3	4.6	2.8	2.2	2.3	4.7	3.2	2.0	3.7	3.8	5.2	1.7	3.7	5.7	4.8	3.0	3.9	3.6
고2	6.6	2.4	2.0	2.2	2.5	1.8	1.9	5.8	5.5	4.5	1.4	3.0	4.2	4.0	2.5	4.3	3.1
평균	5.6	2.6	2.1	2.3	3.6	2.5	2.0	4.8	4.7	4.9	1.6	3.4	5.0	4.4	2.8	4.1	3.4

■ 중학교 향상도 4년 연속 향상 비율 〈단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교	383	167	123	131	87	87	61	17	605	151	125	185	194	233	256	263	44
연속향상교 비율(%)	29.2	13.8	29.3	34.4	25.3	21.8	49.2	0.0	24.7	4.2	6.9	5.0	11.0	8.6	22.5	6.8	40.9

■ 고등학교 향상도 5년 연속 향상 비율 〈단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교	235	100	69	90	49	47	41	7	340	86	54	74	90	86	130	150	20
연속향상교 비율(%)	13.8	20.0	9.7	8.1	56.5	39.7	8.1	0.0	7.0	3.9	20.4	21.2	8.9	24.8	14.4	18.9	0.0

세월호 참사 '부실 구조' 유죄…'부실 관제' 무죄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첫 유죄 인정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는 유죄를, '부실 관제'를 한 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7일 부실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123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3정은 당시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70)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으나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전 정장은 이 같은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부실 관제'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진도VTS 센터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김 전 정장과 진도VTS 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세월호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15개 의료기관 응급환자 구조 협업키로

전남도소방본부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전남지역 15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전원업무(병원간 환자 이송업무) 방안 회의를 하고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 관계자들은 신속·정확한 의료정보 제공, 119와 의료기관 간 협업 등으로 전원조정 업무를 활성화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원업무는 응급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치료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병원 간 이송업무다. /장필수기자 bungy@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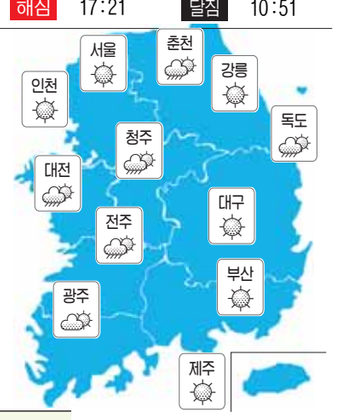
해뜸 07:21 해짐 17:21 달뜸 21:45 달짐 10:51

아침 기온 '뚝'

가끔 흐리다 늦은 오후부터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린뒤 맑음	5/13	보 성	흐린뒤 맑음	3/13
목 포	흐린뒤 맑음	7/13	순 천	흐린뒤 맑음	6/15
여 수	흐린뒤 맑음	8/14	영 광	흐린뒤 맑음	5/13
나 주	흐린뒤 맑음	3/13	진 도	흐린뒤 맑음	5/13
완 도	흐린뒤 맑음	7/13	전 주	비온뒤 갬	6/12
구 례	흐린뒤 맑음	3/12	군 산	비온뒤 갬	6/11
강 진	흐린뒤 맑음	5/13	남 원	흐린뒤 맑음	3/11
해 남	흐린뒤 맑음	4/13	흑 산 도	흐린뒤 맑음	9/11
장 성	흐린뒤 맑음	2/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동)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서)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44	09:55
	17:29	22:38
여수	12:02	05:27
	00:00	18:05

◇**주간 날씨**

12/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2/14	3/12	4/6	2/5	1/8	1/8	0/8